

창간사

한국여성심리연구회가 공식적으로 발족된 것은 1995년 11월이었다. 그러나 그에 앞서 1993년도부터 여성과 관련된 제문제에 관심을 갖고있던 심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여성심리학의 실천적 필요성을 절감하여 수차례 모임을 갖으며 여성심리연구회 발족을 계획하였던바, 마침내 1994년도 10월부터는 그 구체적인 시작업의 하나로 소수회원을 중심으로한 정기적인 여성심리 스타디 모임을 출발시키게 되었다. 그 후 일년간 회원들의 여성심리학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노력을 통해 점차 이론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주변의 공감대가 성숙되어 1995년에 한국여성심리연구회의 창립대회를 갖게 되었다. 이제 그간의 노력에 대한 작은 결실의 하나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이 ‘한국여성심리학회지’이다.

여성심리학은 여성의 사고와 행동을 연구하여 여성의 존재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여성심리의 제현상에 대해 기존의 이론틀을 넘어서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새로운 재분석과 재해석을 제안하게 된다. 이로써 그간 무비판적으로 정당시되어오던 여성심리에 대한 남성중심주의적인 제반 학문들의 주장들이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그 제한점들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문제란 통합적인 접근으로서 연구되어야만하는 분야이므로, 관련영역 학문들에서 연구하고 게시는 분들간의 긴밀한 학제간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한국여성심리학회지’야말로 이런 점에서 여성심리에 대한 제반 학문들의 연구 성과들을 모아 세상에 알림으로써 학문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접목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실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가정에서 역할을 맡아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여가 기대되고 요구된다. 이제 소망으로 막 태어난 한국여성심리연구회지의 앞날을 위해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회지 활동에 뜻을 함께하시는 각계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출발이 있기까지 물심 양면의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1996년 11월

한국여성심리학회장 김태련